

1960년대 펄 벅(Pearl S Buck)의 일본방문과 일본의 펄 벅 수용* — 『대지』의 작가, 혼혈아의 어머니

楊아람**

- | | |
|--|--|
| I. 들어가며: 미국의 도서관 정책과 펄 벅 | IV. <i>The People of Japan</i> (1966)과 펄 벅의 일본인관 |
| II. 일본의 『대지』 번역 수용 | V. 나가며: 상처 입은 '대지', 혼혈아의 어머니 |
| III. 펄 벅의 네 번의 방일: 미일합작영화 <쓰나미>(1960)와 혼혈아 지원사업 (1966, 1967) | |

•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활동가인 펄 벅의 일본 번역과 1960년대 일본 방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 벅의 문학은 미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일본에서 펄 벅의 대표작 『대지』는 일본인에게 애독되었지만 문학적 텍스트보다는 중국, 미국에 관한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읽혔다. 그런데 1960년대 작가의 네 번에 걸친 방문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1960년은 영화 <쓰나미>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방문이었으며 1966, 1967년은 ‘혼혈아 구원’을 위한 방문이었다. 펄 벅의 수용사 고찰은 텍스트의 번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활동도 포괄되어야 한다. 요컨대 일본의 펄 벅 수용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전후사의 맥락 하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텍스트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H1A2A1042376).

** 고려대학교 일본문학·문화전공 박사 수료, 나고야대학대학원 인문학연구과 객원연구원

번역, 작가의 일본 방문, 사회활동 의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미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 외교 및 문화번역의 한 단면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이다.

주제어 : 『대지』, 혼혈아, 문화번역, 냉전문화, <쓰나미>

I. 들어가며: 미국의 도서관 정책과 펄 벅

이 글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활동가인 펄 사이덴스트리커 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 이하 펄 벅)의 일본 번역과 1960년대 일본 방문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번역문화사 연구다. 펄 벅은 장편소설 『대지』를 통해 미국인에게 중국, 아시아를 소개했으며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명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인종차별, 흑인차별에도 반대한 펄 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아시아에서 생긴 전쟁고아를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다. 남편 리처드 월시(Richard Walsh)와 함께 세운 웰컴하우스(Welcome House)는 미국-아시아의 혼혈아와 미국인이 양자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했으며, 그녀가 설립한 『동서협회(The East and West Association)』는 각종 미디어의 채널을 통해 모든 다양한 민족이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펄 벅은 어떻게 일본을 찾게 되었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재건과 발전, 동맹을 위해 미국의 선진문명과 지식을 흡수해야 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서 점령과 동맹의 의심을 받으며 민주주의 전파,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이미지 형성에 힘을 쏟았다. 특히 1950~1960년대 미국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포크너, 펄 벅 등의 작품을 통해 ‘미국’을 일본 내에 구축하려고 했다.¹⁾ 펄 벅 소설의 일본 유입은 1945년~1960년대 GHQ나 미국국무성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다. 1948년 미디어나 인적교류를 통해 국무성의 해외정보 활동을 가능하게 한 스미스 먼트법(The Smith-Mundt Act)은 정부의 문화정책과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미디어 특히 책을 통해 “미국은 모범적 민주국가”라는 이미지를 일본에 주입하고자 했다. 이 도서들에는 미국전통, 역사, 기본적 기질,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의 내용이 포함된 서적이 선정되었다. 반대로 소련적인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즉 1950년~1960년대 일본에서 미 국무성은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작가 윌리엄 포크너와 펄 벅 등을 택했다.

가령 윌리엄 포크너는 미국 국무성의 초청으로 1955년 일본을 방문하여 나가노,

1) 鈴木紀子, 「冷戦期の「文學大使」たち: 戦後日米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における米文學の機能と文化的受容」, 『人間生活文化研究』 23,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3, 258面; 藤田文子, 『アメリカ文化外交と日本-冷戦期の文化と人の交流』, 東京文學出版會, 2015, 93~122面.

도쿄, 교토의 미국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일본 주요 도시에 있는 미국문화센터는 점령기에는 CIE도서관으로 알려진 공보센터로 점령이 끝날 무렵 전국에 23개가 있었다. 미국문화센터는 “미국의 창”으로 일본인에게 미국의 정보와 문화를 전달했다.²⁾ 연합국이 만든 도서관은 대다수의 일본인이 해외에 눈을 뜨고 일상생활에 미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³⁾ 일본에서 포크너는 미국 남부와 일본이 경험한 전쟁경험, 극복을 유사점으로 거론하며 일미 협조를 강조했다. 포크너 연구의 토대를 세운 오하시 겐자부로(大橋健三郎)는 포크너의 강의에서 남부사회에 주목하면서 남북전쟁 패배를 겪은 남부사람들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일본과 일본인들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르지만 도시의 힘에 의한 전통사회의 상실, 근대화의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⁴⁾

이처럼 포크너가 전쟁을 예로 들어 일본과 미국이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다고 지적했다면, 펄 벅은 “아시아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미국인”, “혼혈아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일본과 미국(인)이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펄 벅의 대표작 『대지』는 이미 종전 이전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어 1938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그녀가 출판하는 작품들은 번역되어 일본인에게 소비되고 있었다.

이러한 펄 벅의 수용에 관련한 일본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요시하라(吉原真理)는 『대지』가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인의 중국관, 동양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계층의 분화, 제국주의 내셔널리즘의 공의 역사’와 ‘가족 및 가정성의私の 영역’을 결합해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⁵⁾ 가와바타(川端理恵)는 『대지』, 『아들들』에 등장하는 지적 장애인에서 펄 벅이 자신의 지적 장애인 딸 캐롤린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⁶⁾ 스즈키(2013)는 미국이 일본에 도서를 보내

2) 藤田文子, 『アメリカ文化外交と日本-冷戦期の文化と人の交流』, 東京文学出版會, 2015, 40~41面.

3) 山本正, 『戦後日米関係とフィランソロピ-民間財團が果たした役割, 1945~1975年』, ミネルヴァ書房, 2008, 220面.

4) 양아람, 「윌리엄 포크너의 일본 방문(1955)과 문학·문화적 교류」,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498면.

5) 吉原眞里, 「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權威とジェンダー」, 『アメリカ研究』 30, アメリカ學會, 1996, 137~154面.

6) 川端理恵, 「Pearl S. Buckと障害をもつ登場人物: Disability Studiesの視点でThe Good Earth(1931)とSons(1932)を読み直す」, 『名古屋アメリカ文学・文化=NagoyaAmerica literature/culture』 4, 名古屋大學アメリカ文学・文化研究會, 2016, 1~22面.

는 문화사업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으며 일본인은 미국작가와 작품을 동경하면서 작품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일본적 요소”에 공감했다고 논한다.⁷⁾ 스즈키(2015)는 소설 『쓰나미』⁸⁾의 영화제작은 일본-미국이 합작한 일대의 사업이었고 “서양인이지만 동양인의 마음을 가진 펄 벅”이 참가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으며 이 영화제작이 냉전기 미국이 다수 만들어낸 표상의 하나라는 것을 논한다.⁹⁾ 스즈키(2018)는 『쓰나미』는 다른 펄 벅 작품에 비해 아동의 단편으로 지명도가 낮은 작은 작품이지만, 펄 벅이라는 세계적 지명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이고 전후 점령 하 일본에 번역출판이 장려된 것, 냉전이 과열되는 1950년대 후반에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미디어화 된 것은 전후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및 냉전외교에서 하나의 문화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¹⁰⁾

스즈키가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도서관 정책, 『쓰나미』의 작품연구, 영화 <쓰나미> 제작 과정을 논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펄 벅의 번역과 일본 방문에 대한 번역문화사 연구는 일부만 되어 있다. 1960년대 펄 벅의 방문은 영화 <쓰나미> 제작을 위한 방문(1960, 1·2차)과 혼혈고아를 위한 지원(1966, 3차; 1967, 4차)으로 네 번 이루어졌다. 그녀의 방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외국문학의 번역 수용, 일미관계, 당대의 지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펄 벅의 방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펄 벅은 중국에서 전도를 하는 선교사 앤드류 사이텐스토리커와 어머니 캐리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1910년 버지니아 주 랜돌프 메이콘 여자대학(Randolph-Macon Woman's College)에 입학하기까지 그녀는 18년간 중국에서 거주했다. 이 기간 동안 1894년 청일전쟁이 있었고, 1900년에는 외국인 침략에 대한 중국 민중의 반감이 드러난

7) 鈴木紀子, 「冷戦期の「文學大使」たち: 戦後日米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における米文學の機能と文化的受容」, 『人間生活文化研究』 23,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3, 258~276面.

8) 『쓰나미』의 원제는 『The Big Wave』(1948)이고, 원서는 『つなみ』(1951)로 영화제목으로는 <大津波>로 불렸다. 펄 벅의 저서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 원고에서는 영화제목도 『쓰나미』로 번역했다.

9) 鈴木紀子, 「「幻」の映畫をめぐって『大津波』日米合同映畫製作とパール・バック」, 『Otsuma review』 48, 大妻女子大學, 2015, 39~49面.

10) 鈴木紀子,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6面.

의화단¹¹⁾ 사건으로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살해당했다. 그녀의 가족은 이때 중국인 가족이 숨겨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917년 중국 농업을 전공하는 로싱 벽과 결혼하고 1921년까지 화북에 거주했다. 1921년 남경으로 이사하면서 남편은 남경대학에서 농경법을 가르치고 펄 벽은 남경대학, 중앙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는 중국 이야기를 『애틀랜틱』, 『네이션』, 『포럼』에 기고했다. 그러나 펄 벽의 중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1927년에는 중국국민혁명군이 남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펄 벽은 가까스로 어려움을 피해 딸을 데리고 잠시 일본 나가사키(長崎) 운젠(雲仙)으로 피난했다.

1930년에 남경에서 영어로 쓴 『대지』는 1931년에 출판되자 큰 호평을 받았다. 『대지』는 미국에서 1931년에만 200만부가 팔렸으며 1931~1932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30여 국가에 번역·출판되었다. 미국에서는 이후 『대지』의 속편으로 1932년 『아들들』¹²⁾, 1935년 『분열된 일가』¹³⁾가 출간되었다. 저술 작업은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로싱 벽과 불화로 결혼생활은 힘들었다. 1936년 그녀는 로싱 벽과 이혼을 결정하고 출판을 통해 알게 된 리처드 웰시(Richard Walsh)와 결혼했다.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때 펄 벽의 저술은 소설, 평론, 전기, 번역 등 70편에 이른다. 펄 벽이 노벨상은 받은 것은 『대지』를 포함해 1936년에 출판한 펄 벽 부모의 전기인 『어머니의 초상』, 『싸우는 천사』가 기여했다.¹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11) 의화단은 扶清滅洋(부청척양: 청을 도와 서양을 멸망하자)의 슬로건을 걸고 기독교 교도를 살해하거나 교회를 파괴했다. 서양에 관련한 수입물품을 파는 상점들도 파괴했다. 川島眞, 『シリーズ中國近現代史②近代國家への模索 1894~1925』, 岩波親書, 2010, 46面.

12) <표 1> 펄 벽의 *Sons*의 일본어역

원작발행	원서명	일본어역	번역발행	번역자명	출판사	비고
1932년	<i>Sons</i>	息子たち: 二部	1936. 6	新居格	第一書房	
		『息子達 長編小説』	1936. 12	新居格	第一書房	
		『息子達』	1938	新居格	第一書房	
		『息子たち』	1949	新居格	共和出版社	
		『大地』	1953~1954	新居格	新潮社	1卷~4卷
		『大地』	1956	大久保康雄	河出書房	1卷~4卷
		『大地』	1967~1968	新居格, 中野好夫補譯	新潮社	1卷~4卷
		『大地』	1972	朱牟田夏雄	講談社	1卷~3卷

13) <표 2> 펄 벽의 *A House Divided*의 일본어역

펄 벅은 미국문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윌리엄 포크너는 펄 벅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펄 벅을 ‘차이나 핸드벅(Mrs. China Hand Buck)’이라고 부르며 비꼬았다.

펄 벅 작품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장왕록은 『대지』처럼 스케일이 웅장하고 묵직한 내용은 ‘유화’이고, 『숨은 꽃』과 『북경에서 온 편지』는 가볍고 섬세한 터치로 이루어진 ‘수채화’라고 언급했다.¹⁵⁾ 나카무라(中野好夫)는 1930년대는 펄 벅의 작품이 결실을 맺은 때이지만, 1940년대 이후 그녀의 중점은 사회활동의 쪽으로 옮겨갔다¹⁶⁾고 여겼다.

실제로 펄 벅은 미국에서 소설가로서 명성이 높기도 했지만 사회활동가로서도 유명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병사와 아시아인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미국 입양에 힘을 쏟았다. 1940년 초에는 미합중국의 중국인 배척법 수정을 위한 로비활동,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일제인 수용소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받은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사회전반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차별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일본을 방문한 시기는 1960년, 1966년, 1967년으로 아직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동시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기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을 상징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종전 후 미국의 경제적·문화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국의 전통과 문화의 발견 및 구축에 점점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이자 아시아 전문가, 노벨문학상 수상

원작발행	원서	일본어역	번역발행	번역자명	출판사	비고
1935년	A House Divided	『分裂せる家：長篇小説』	1936. 12	新居格	第一書房	
		『分裂せる家』	1938	新居格	第一書房	戰時體制版
		『分裂せる家』	1949	新居格	共和出版社	
		『大地』	1953~1954	新居格	新潮社	1卷~4卷
		『大地』	1956	大久保康雄	河出書房	1卷~4卷
		『大地』	1967~1968	新居格譯, 中野好夫補譯	新潮社	1卷~4卷
		『大地』	1972	朱牟田夏雄	講談社	1卷~3卷

14) 「文庫・新書一「母の肖像」, 『朝日新聞』, 1965.7.11, 18面.

15)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대지』, 소담출판사, 2010, 434면.

16)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四), 新潮文庫, 1954, 295面.

자인 펄 벅의 방문은 성장한 일본을 보여주는 場이자 일본과 미국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문화적 교류일 수 있었다.

요컨대 이 글은 펄 벅의 1960년대 일본 방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펄 벅 수용사를 究明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의 펄 벅 및 대미인식, 펄 벅의 대일인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현상은 텍스트의 번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디어 번역과 작가의 방문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은 당대 문화교류와 사회사·지성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텍스트 번역과 함께 미일합작영화 <쓰나미>의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방일, 혼혈아 지원 사업을 위한 방일 등을 고찰함으로써 당대의 사회문화와 다층적이고 통시적인 번역 수용 맥락을 구명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이다. 자료는 각종 미디어 텍스트, 1966년 방일 후 펄 벅이 쓴 『내가 본 일본』, 남편과의 추억과 <쓰나미> 영화 참여에 대한 감상을 쓴 『지나간 사랑에의 다리』¹⁷⁾, 신문, 잡지, 원서 등을 참고했다.

Ⅱ. 일본의 『대지』 번역 수용

이 장에서는 방일 이전 펄 벅의 번역수용과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방일의 국면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번역을 살펴보기 전에 『대지』의 발간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지』는 1931년 출판 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작가는 1932년 풀리처 수상, 1938년 미국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펄 벅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상이했다. 『대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를 둘러싼 인간의 군상을 다루고 있어서 토지를 중시한 1930년대 미국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지』는 토지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소설 『바람과 사라지다』, 『토바코 로드』, 『분노의 포도』와 비견되는 작품이었다.¹⁸⁾ 제임스 톰슨(James Thompson)은 펄 벅을 “13세기의 마르

17) 원제는 *A Bridge for Passing*(1962)이다. 『뉴욕타임즈 북 리뷰』는 *A Bridge for Passing*은 펄 벅의 25년의 결혼생활에 대한 책이며, 『시카고 트리뷴』은 이 책을 통해 펄 벅의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 책의 중점이 일본 방문이 아니라 펄 벅의 결혼생활의 소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코 폴로 이래로 중국을 세계에 알린 작가”¹⁹⁾로 여겼고, 펄 벅 연구의 대가인 피터 콘은 『대지』를 통해 중국을 “창조했다”고 강조한다. 미국 출판인 미첼 케너리(Mitchell Kennerley)는 『대지』가 중국 남녀의 이야기이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보통의 남녀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²⁰⁾

그러나 『대지』가 우수한 작품이 아니라고 반론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중국의 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인 장강후는 왕룽과 오란이 전형적인 중국인이 아니라 “내륙 특정 지역 출신의 특이한 인물”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²¹⁾ 그는 작품이 중국의 특정 측면을 왜곡하고 사실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²²⁾ 펄 벅은 장강후에 대해 “그는 중국이 소작농이나 보통 중국인이 아닌 중국의 학자나 지성인의 모습으로 서구 세계의 눈에 띄기를 원한다고”²³⁾ 이야기했다. 한국을 미국에 소개한 강용홀은 펄 벅이 『대지』의 주요 인물을 서양식 낭만적 줄거리로 묘사했으며, 지주가 자기 노비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을 묘사해 중국인의 성관계의 실상을 왜곡했다고 말했다.²⁴⁾ 1960년李文俊은 『세계문학』에서 「미국반동작가 펄벅의 해부」²⁵⁾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문준은 펄 벅이 지주계급의 가혹한 농민 착취를 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²⁶⁾ 펄 벅이 그린 중국은 전근대적이고 서양인이 중국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을 강조할 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²⁷⁾도 있었다. 중국에서 “반동적 입장에서 중국에 적대적”이라고 평가받던 펄 벅의 『대지』는 1991년이 되어서야 재평가되기 시작했다.²⁸⁾

이처럼, 일반적으로 『대지』를 호평한 비평가는 소설의 보편적인 매력, 중국 이해의 공헌 그리고 미국문학의 영역을 확장한 점을 꼽았고, 반대로 비판적 입장은 문학적 미숙, 정확성이 결여된 묘사, ‘진짜 중국’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²⁹⁾

18)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225면.

19) 양영재, 「펄 벅의 소외와 문학전통」, 『동서비교문학저널』 46,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8, 224면.

20) Harris, Theodore F, *Pearl S. Buck*, The John Day Company, New York, 1969, p.194

21)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223면.

22) Paul A. Doyle, *PEARL S. BUCK*, Twayne Publishers, 1965, p.50.

23) Paul A. Doyle, 앞의 1965 책, p.52.

24)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223면.

25) 稻澤秀夫, 『アメリカ女流作家論』, 審美社, 1978, 78面.

26)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四), 新潮文庫, 1954, 298面.

27) 吉原眞里, 『朝日百科 世界の文學』, 朝日新聞社, 2000, 18面.

28) 「パール・バック 中國で評價へ」, 『朝日新聞』, 1991.2.9, 夕刊12面.

〈표 3〉 펄 벅의 *The Good Earth*의 일본어역

원작발행	원서명	일본어역	번역발행	번역자명	출판사	비고
1931년	<i>The Good Earth</i>	大地——部	1935년	新居格	第一書房	
		『大地』	1938년	新居格	第一書房	戰時體制版
		大地——部	1954년	新居格	新潮文庫	
		『大地』	1955년	大久保康雄	河出書房	世界文學全集, 第2期 21
		『大地』	1961년	飯島淳秀	筑摩書房	世界名作全集, 40-41
		『大地』	1967.6~1968.4	佐藤亮一	旺文社	
		『大地』	1967~1968	新居格, 中野好夫補譯	新潮社	
		『大地』	1970.7~1970.11	朱牟田夏雄	講談社	世界文學全集
		大地——部	1995년	小野寺建	岩波文庫	
		『大地』	1997.2~1997.4	小野寺健	岩波書店	

일본에서는 1934년 니 이타루(新居格)가 『대지』(1931)를 처음 번역하였다.³⁰⁾ 니 이타루의 번역본은 1960년대 펄 벅이 방일할 때까지 계속 읽혔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의 번역은 중요하다. 니 이타루는 『대지』가 농민소설로서 일본의 농민작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펄 벅이 소설에서 어떻게 支那를 그리는지 살펴보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했다.³¹⁾ 그는 『대지』가 지나의 농민생활과 지나인의 심리를 그리고 있고 『아들들』은 지나군벌사, 지나사회의

29) 吉原眞里, 「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權威とジェンダー」, 『アメリカ研究』 30, アメリカ學會, 1996, 138面.

30) 최초 번역자는 니 이타루로 되어 있지만, 박진영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번역자는 후카자와 쇼사쿠(深澤正策)일 가능성이 크다. “보급판으로 출판된 『대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빛이진 인세 마찰로 보건대 실제 번역가는 후카자와 쇼사쿠(深澤正策)다. 후카자와 쇼사쿠는 펄 벅의 『싸우는 천사』(1936), 『어머니의 초상』(1938), 『동풍 서풍』(1938),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제1~2권, 1938~1939)를 잇따라 내놓았으며, 니 이타루는 린위탕의 『나의 나라, 나의 국민』(1938),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1940)로 유명해졌다.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519~520면.

31)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 第一書房, 1935, 4面.

변전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1967년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가 니 이타루의 번역을 보충했다. 니 이타루의 번역 이후 새로운 번역은 사실상 1970년, 슈무타 나츠오(朱牟田夏雄)의 번역본이다. 그는 전체적으로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했고 틀린 부분이 없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슈무타는 왕룽이 언급하는 ‘銅貨’를 ‘銅幣’로 번역했다.³²⁾ 이후, 1990년대 오노데라 다케시(小野寺健)의 번역본³³⁾이 나왔다. 오노데라는 『대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첫 번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 두 번째는 이야기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대지』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하세가와(長谷川正平)는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상해사변 발발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³⁴⁾ 실제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1938년이다. 이처럼 『대지』는 전쟁 속 중국을 알기 위해 일본 독자에게 소비되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고 일본에서 중국을 알기 위해 읽은 『대지』는 정작 어떤 내용일까. 장편소설 『대지』는 중국이 청조에서 근대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근면한 노력으로 부호가 되는 농민 왕룽 일가의 이야기이다. 왕룽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이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를 잘 낳는 여자를 데려오기를 바란다. 가난한 농민 왕룽은 부자의 노예였고³⁵⁾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근면하고 인내가 있는 아란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부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땅을 샀지만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 결식생활을 한다. 아란은 아들을 데리고 구걸을 했고 왕룽은 인력거를 끌며 돈을 벌었다. 얼마 뒤 전쟁이 벌어져 혼란한 시기에 부부는 재물을 훔쳐

32) 슈무타는 상하이에 몇 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어 당시 중국 사람들은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살 때 銅幣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銅貨’를 최대한 현대적으로 번역해 일본독자가 『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銅幣’로 했던 것이다.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大地』(上)(下), 講談社, 1975, 401面.

33) 오노데라는 슈무타의 고유명사 번역을 참고했다고 했다. パール・バック, 小野寺健 譯, 『大地』(4), 岩波書店, 1997, 409面.

34)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大地』(上), 講談社, 1975, 403面.

35) 고미 도모코(五味知子)는 『金瓶梅詞話』, 『紅樓夢』, 『兒女英雄傳』, 『海上花列傳』을 통해 노예의 신분이 전족의 여부에 달라진다고 했다. 주인을 가까이 따르는 노예는 전족을 하고 있지만, 잡일을 하는 노예는 전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中國女性史研究編, 『中國のメディア・表象とジェンダー』, 研文出版, 2016, 9~10面.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왕룽과 아란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었지만, 남편은 첩 연화를 데려와 아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왕룽은 아란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아란은 죽을 때까지 일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한편 아이들은 어느새 장성하여 땅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왕룽이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대지』의 결말이다.

가끔은 늙은 아버지가 배가 고프면 그가 돌아오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 하거나, 밀가루는 반죽해서 그 속에 마늘을 넣고 빵 같은 것을 구워놓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무엇을 차렸든 간에 그를 위한 식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식탁 옆 의자에 앉기만 하면 곧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흙 마룻바닥은 언제나 깨끗이 닦여져 있었고, 땀나무는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 그리고 오란은 식구들의 누더기 옷들을 꺼내, 그녀가 손수 대나무 물레를 사용해 솜에서 뽑은 실로 해진 겨울옷을 손질하고 형겅을 대어 김기도 했다. 그녀는 또 침구를 문지방에 넣어 햇볕에 쬔었고 이불보를 뜯어 땀 다음 대나무 위에 널어 말렸다.³⁶⁾

이처럼 사회혼란 속에서도 자수성가하는 중국 빈농의 삶을 다룬 『대지』에는 중국인의 생활, 의복, 주거의 특징, 경제, 혼인 풍속, 불 붙이는 방법, 조리법 등이 묘사되어 있어 ‘민족지적 성격’³⁷⁾으로도 일본 독자와 대면했다. 빈농의 생애는 단순한 중국인의 삶의 풍속에서 그치지 않고 내란 속 대륙인의 삶, 지적 수준, 이국적인 문화와 문명의 모습과 단계까지 드러내고 있다.

(광고) 第一書房예약 전7권, 펴 벽 대표선집, 역자: 新居格・深澤正策 각1원 30전.

세계의 지나관을 근본적으로 바꾼 명저!!! 대지 백만!! 전독서계 대 감격!!!
보아라! 이 대소설!!!!

(대지 제1부) 내란이 반복된 지나 4천년의 고뇌를 몸소 꿰뚫어 빈농이 부를

36) 펴 벽, 장왕록·장영희 공역, 『대지』, 소담출판사, 2010, 40면.

37) 吉原眞里, 「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權威とジェンダー」, 『アメリカ研究』 30, アメリカ學會, 1996, 140面.

축적하는 근면한 주인공, 그러한 남편을 위해 운명의 가혹한 시련을 조용히 감내한다. 죽어가는 아란은 전인류의 고뇌를 대표하며 독자를 울린다.

(대지 제2부)는 왕룽의 2대. 부를 분배한 아들들이 지주와 상인, 군인으로 활약한다.

(대지 제3부) 대지에서 3대로 이동한다. 대지에서 죽은 아란, 대지에서 멀어진 왕룽. 현대의 경종을 울린다. 지나의 지식계층이 서양문화를 익히다.³⁸⁾

『대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작가의 중국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미국인이자 선교사의 딸인 작가가 서양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과 지식을 배경으로 소설에 역학관계를 드러낸다.³⁹⁾ 중국을 알기 위해 읽기 시작한 독자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정보도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인은 소설을 통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인력거’⁴⁰⁾를 타는 미국 선교사를 상상하게 된다. 『대지』가 단편적인 미국 표상을 제시한 반면, 『대지』의 제3부로서 번역된 『분열된 일가』는 왕룽의 손자가 미국유학을 가서 미국 문화를 자세히 묘사한다. 『분열된 일가』의 책 소개에서도 ‘서양문화’를 배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소설의 무대가 옮겨진다.

그는 보는 것마다 감탄했다. 이 낯선 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도시에 상륙했을 때, 그동안 듣던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들은 생각보다 더 높고, 포장된 거리는 방 안처럼 깨끗해서 아무데나 앉거나 드러누워도 될 것 같았다. 거리며 오가는 사람의 하얀 피부나 깨끗한 옷차림은 보기만 해도 산뜻했으며, 모두 부유하고 잘 먹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거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의 소매를 잡고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달라거나, 푼돈을 적선해달라는 거지를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다. 모두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먹을 것도 넘쳐났다.⁴¹⁾

38) 「廣告一大地」, 『讀賣新聞』, 1938.2.16.

39) 吉原眞里, 「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權威とジェンダー」, 『アメリカ研究』 30, アメリカ學會, 1996, 141面.

40) 많은 아시아 작가들이 그랬듯이, 펄도 인력거를 서양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았다.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481면.

41)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분열된 일가』, 소담출판사, 2010, 180면.

『분열된 일가』에서 왕원이 처음 보고 느낀 미국은 자연, 건물, 사람들까지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안락한 생활과 부유함, 훌륭한 집이나 그들이 이룩해놓은 많은 발명품들, 공기와 바람, 물, 번개를 이용하는 기술을 보며 부러워 했”⁴²⁾지만, 노교수와 메리와의 교류를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이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생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⁴³⁾했다. 그러나 왕원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중국은 내란이 빈번했고 빈민은 더욱 더 가난해 졌다. 펄 벅은 『분열된 일가』에서 왕원의 시선을 빌려 부유한 미국과 궁핍하고 혼란의 중국을 묘사하면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중국과 선진국 미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왕원은 도서관에서 식물의 성장을 밝힌 책을 보고 미국의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미국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노교수와 메리와 함께 간 교회에서 “인상 좋고 인격이 높아 보아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며 그 내용이 선량하고 무해하다고” 여긴다. 선교사 딸인 펄 벅의 인식이 작품에 반영되어 독자의 대미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펄 벅은 『분열된 일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미국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왕원의 시각으로 포착하는 미국의 외양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문화를 통해 제시된 미국이다. 가령 미국의 넓은 초원, 큰 건물, 발명품처럼 시각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모습에서 왕원은 미국을 많이 ‘발전된 나라’로 느끼지만 미국문화를 대표하는 미국교회와 가부장적이지 않은 미국 가정의 모습, 메리로 대표되는 당당한 여성상을 경험할 때 훨씬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일본 독자는 『분열된 일가』에서 중국인 젊은이가 미국유학을 가는 서사를 통해 미국의 정경과 미국인의 생활 전반을 간접체험 하게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회의 일본인은 미국 가정과 여성상을 통해 왕원의 문화적 충격을 실감하면서 이국적인 대미인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펄 벅의 책이 도서관 정책으로 추천되었던 것은 대표적인 유명 작가이자 『대지』의 후속편인 미국을 상세히 묘사한 『분열된 일가』 때문이기도 하다. 발전된 미국 문명, 화목한 미국 가정, 민주주의의 우수함을 선전하고 전파하고자 한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펄 벅의 위상과 펄 벅이 그리는 ‘미국’의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다. 도서관 정책으로 일본의 대도시에도 공급

42)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앞의 2010 책, 205면.

43)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앞의 2010 책, 243면.

된 『대지』, 후속작 『분열된 일가』는 치열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소프트파워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텍스트 역할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분열된 일가』가 일본인의 대미인식에 일조했다면 그보다 먼저 쓰였고 더 유명했던 『대지』와 일본인의 대면은 어떠했을까. 『대지』가 간행된 후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는 “일본인이여! 왜 지나를 쓰지 않는가?”⁴⁴⁾ 하며 지나를 다룬 소설이 일본문학계에 없는 것을 지적했다. 평론가 이시카와 산시로(石川三四郎)는 『대지』를 한 농부의 생활기록이 아닌 4천년의 역사를 지배한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⁴⁵⁾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는 『대지』가 지나 농민을 그린 본격적인 소설이며 그 문학적 가치는 높다고 평가했다.⁴⁶⁾ 일본 독서계는 『婦人公論』, 『文藝』, 『新潮』에 펄 벅을 소개했다. 1937년 10월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일요평론」에도 지나 관계의 책 중 『대지』를 현대의 위대한 서책으로 추천⁴⁷⁾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세가와오는 『대지』는 미국에서 태어난 묘목이 중국의 땅에서 자라 중국 고전소설에서 영양을 흡수해 훌륭히 개화한 것이라고 했다.⁴⁸⁾ 혼다 겐쇼(本多顯彰)는 『대지』는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이지만, 대지 그 자체의 생애도 그려져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⁴⁹⁾ 아베 도모지(阿部知二)는 펄 벅의 작품이 현대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나를 취급한 자체를 높이 평가한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에 아베는 펄 벅이 지나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⁵⁰⁾ 구보카와 쓰보지로(窪川鶴次郎)는 일본의 작가가 지나 여행을 할 뿐 작품을 쓰지 않고, 국가가 지나문화와 미국문화가 침투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는 것을 개탄한다.⁵¹⁾ 이처럼 일본 지식층은 『대지』를 읽고 중국을 좀 더 알게 돼 기뻐하면서도 일본인이 직접 지나를 쓰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44) 「廣告一大地」, 『讀賣新聞』, 1937.11.11.

45)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 第一書房, 1935, 368面.

46) 松岡譲, 「宗教批判の提唱(1)」, 『朝日新聞』, 1936.2.14, 9面.

47) 「廣告一大地」, 『讀賣新聞』, 1937.11.11.

48)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大地』(上), 講談社, 1975, 419面.

49) 本多顯彰, 「パール・バック著『大地』」, 『朝日新聞』, 1938.2.28, 4面.

50) 阿部知二, 「パール・バック女史(本年度ノーベル文學賞を受く)」, 『朝日新聞』, 1938.11.12, 7面.

51) 窪川鶴次郎, 「新大陸文學」, 『朝日新聞』, 1939.1.16, 7面.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펄 벅은 신문, 잡지의 소개란에 오르며 일반 독자와도 대면했다. 『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입하 일정⁵²⁾이 신문에 소개되었다. 무엇보다 작품이 영화화 되면서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영화가 개봉되고, 중일전쟁 개시가 맞물리면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극을 통해서도 일본의 문화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펄 벅이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지만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고 그 부모도 중국에서 함께 하여 중국관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증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영화, 문학상까지 이어지면서 펄 벅의 관점은 일정 부분 권위와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영화 개봉, 극화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중국을 다룬 영화가 중국이 아닌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었다.

『대지』의 영화 제작이 현실이 된 것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작품이 성공한 후였다. 『대지』의 판권을 산 것은 1931년, 영화 제작을 위해 준비한 기간이 4년, 실제 촬영이 1년이 걸려 1937년에 영화가 개봉되었다. 영화 <대지>(1937)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란과 왕룡을 연기한 배우들이 모두 백인이었다는 점이다.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할리우드 영화 환경에서는 영화에 아시아인이 출현하는 영화는 거의 없었고 백인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란 역을 맡은 루이즈 라이너(Luise Rainer)는 연기력을 인정받아 제10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 <대지>는 일본에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영화팜플렛) 다음 주 대공개!!!

支那군벌의 확대! 빈농 왕룡과 아내인 아란의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동란, 약탈, 기근 복잡하고 다채로운 사변! 이것이 현대 지나의 진짜 세계를 그린 천고불멸의 걸작이다!⁵³⁾

소설 『대지』와 영화 <대지>는 조금 달랐다. 『대지』 속에서 중국인의 남존여비를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영화에서 왕룡은 평등주의자, 아란을 아름다운 히로인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는 대홍수, 메뚜기 떼의 습격이 스펙터클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호우 장면은 빠져있다. 시드니 감독은 호우 장면을 뺐다고 해도 왕룡의 내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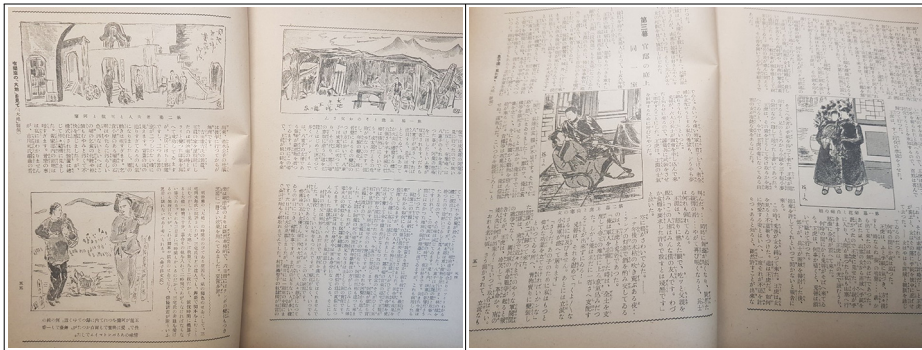
52) 巨編, 「大地」 いよいよ入荷する, 『朝日新聞』, 1937.7.21, 5面.

53) 『TEIGEKI』, 帝國劇場, 1937.10.28, 4面.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⁵⁴⁾

영화 <대지>는 일본에서 1937년 帝國劇場에서 공개되었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夫)는 메뚜기 습격 장면을 보고 감격을 받았다. 그는 과학 정신이 문학을 자극하여 리얼리즘 수법을 만들었지만 카메라의 정교한 발전이 문학의 리얼리즘을 떼어 놓고 말았다고 했다.⁵⁵⁾ 이러한 논평을 통해 당대 일본인이 영화 내용이 아니라 영화제작 기법을 통해 미국문명과 기술력에 감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의 배경은 중국을 다루지만 영화제작을 통해 일본인은 선진미국 문명을 실제로 체감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은 소설 『분열된 일가』 뿐만 아니라 영화 <대지>의 영화기법을 통해서 미국의 강대함을 접했다.

그러나 영화는 소설을 온전히 일본관객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영화 <대지>는 국가의 검열을 거쳐 일본 관객과 조우했다. 당국은 폭동 등과 같이 일본인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바꿨다. 이처럼 일본이 ‘검열’을 하고 있을 때, 중국 당국은 하층농민의 지난한 삶을 너무 리얼하게 다룬 이 작품이 자국 사회에 미칠 파장을 염려해 ‘상영금지 처분’을 했다. 일본이나 중국의 지배세력에게 민중의 반궁과 폭동의 서사는 반정부적·반체제적 요소였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를 모두 접한 독자라면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1〉 『演藝畫報』에 실린 극 <대지>와 <아들들> 내용 소개⁵⁶⁾

54) 「新映畫評 大地」, 『朝日新聞』, 1937.10.16, 6面.

55) 小林秀雄, 「實物の感覺」, 『朝日新聞』, 1937.11.11, 7面.

56) 『演藝畫報』, 1938.4, 50~51面, 54~55面.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설과 영화에 이어 일본은 劇이라는 장르로 새롭게 변형해 수용하기도 했다. 작품의 극화의 배경에는 영화의 선전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⁵⁷⁾ 책, 영화의 흥행이 극의 공연으로 이어진 셈이다. 공연은 1938년 4월호 『演藝畫報』에 상세히 실린다. <대지>공연은 1938년 2월 메이지좌(明治座), 1938년에 3월 東京劇場(1938.3.1, 5시)과 有楽座(1938.3.3, 5시 30분)에서 열렸다. 메이지좌(明治座)에서 청년가부키(青年歌舞伎)의 <대지>를 본 연극연구가 이이즈카 도모이치로(飯塚友一郎)는 청년가부키가 꾸민 무대장치에 감탄했다.⁵⁸⁾ 도쿄극장의 공연(왕룡의 대지에 대한 집착, 왕룡과 아란의 일생)은 왕룡과 아란에게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을 흐름 있게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고, 유락좌의 공연(왕룡과 그 아버지, 노부인과 왕룡과 아란)은 템포 있는 음악으로 극의 효과를 이끌어 내려고 했다. 유락좌의 공연을 본 시라이시 야스시(白石靖)는 청년가부키는 ‘왕룡’을 중심으로 연출을 했는데, 유락좌의 공연은 ‘아란’을 중심으로 연출을 했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란을 연기한 야에코가 학대받은 한 여성에 흥미를 가지고 연기한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야에코가 너무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아란이 배우에게 가려지는 역효과가 있었다. 『演藝畫報』의 ‘讀者俱樂部’에는 공연을 본 독자가 <대지>공연이 극적 요소도 재미도 있었다고 투고했다. 하지만 극은 그다지 흥행하지 못했다.

극 <대지>에 이어 『아들들』도 각색하여 무대에 올랐다. 『아들들』을 각색한 가네코 요분(金子洋文)은 호평보다는 혹평을 받았는데 방대한 원작을 단시간에 연극으로 조직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화 <대지>의 영향도 컸다. 영화를 보고 기대한 관객들은 연극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더 실망했다. 또한 극을 이끄는 배우들이 시간조정에 익숙하지 않아 2시간인 극이 3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왕룡을 연기한 오카 조지(岡譲二)는 처음 역을 제안 받았을 때는 영화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다고 한다.⁵⁹⁾ 아란 역을 제안 받은 미즈타니 야에코(水谷八重子)는 각색이 아닌 미국 연기 각본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⁶⁰⁾

배우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 <대지>의 흥행성적은 그다지

57) 竹中莊吉, 「『大地』競演」, 『演藝畫報』, 1938.4, 42面.

58) 飯塚友一郎, 「『大地』と『勸進帳』-明治座の青年歌舞伎」, 『朝日新聞』, 1938.2.10, 6面.

59) 「『大地』俳優の話」, 『演藝畫報』, 1938.4, 57面.

60) 위의 책, 56面.

좋지 못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나카이(中井泰孝)의 각본으로 연기됐지만 이곳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할리우드영화의 상영으로 ‘극’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끌었지만 정작 극을 관람한 독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 셈이다. 일본인은 영화 장르의 상대적 우위를 체감하게 된다. 결국 할리우드 영화가 극의 흥행, 배우 연기, 극의 스토리 해석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극으로써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대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펄 벅의 작품은 중국과 관련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중요한 지식콘텐츠였다. 정리하면, 전후에 미국의 도서관 문화정책으로 포크너와 함께 의식적으로 일본에 수용되기 시작한 펄 벅은 이미 戰前에 이미 소설, 영화, 극으로 알려져 있었다. 펄 벅은 『대지』를 통해 중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그와 동시에 대지 3부인 『분열된 일가』를 통해서는 대미인식 형성에 기여했으며 영화 <대지>는 선진 촬영기법을 통해 일본인에게 미국 문명의 선진성을 실감하게 했다. 즉 펄 벅의 작품과 영화는 미국인의 중국관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미국문화와 문명을 동시에 제시한 사회적 텍스트로서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가 1960년대 직접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노벨문학상 작가로서 일본인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펄 벅의 방일 소식은 일본인에게 반가운 일이었다. 윌리엄 포크너처럼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일미관계개선을 위한 일본방문을 권유받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펄 벅의 방문은 네 번이나 이루어진다. 1960년대 미일합작영화 <쓰나미>의 시나리오 작가로 방일하게 된다. 영화 <쓰나미>의 배경이 나가사키였기 때문이다. 소설 『대지』의 작가 펄 벅의 방문은 <쓰나미>라는 작품보다 ‘펄 벅’의 이미지를 알린 계기이기도 했다. 다음 장에서는 1960년대 펄 벅의 일본방문과 일본인의 펄 벅 및 대미 인식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한다.

Ⅲ. 펄 벅의 네 번의 방일: 미일합작영화 <쓰나미>(1960)와 혼혈아 지원사업(1966, 1967)

펄 벅의 도서는 미국의 도서관 정책으로 미국 이미지 형성을 위한 콘텐츠로 사용되었고 일본인에게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작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1960년대 펄

벽은 일본을 네 번 방문(1960년 1·2차, 1966년, 1967년)했고 그 목적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설가로서의 펄 벅이 높이 평가받지 않은 것처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포크너나 사르트르, 에렌부르크와 달리 펄 벅의 일본행은 1차 미일합작영화 초청 외에 모두 개인 방문 형식이었다. 다른 유명 서구작가의 방문과 달리 펄 벅 전공자, 교수, 출판사 등이 1차 방문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펄 벅은 일부 여성 작가를 잠시 만났을 뿐이다. 이러한 당대 분위기를 먼저 숙지하면서 펄 벅의 방문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자.

1960년 펄 벅의 첫 번째 방일은 미일합작영화 <쓰나미>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루어졌다. 1949년 1월 펄 벅은 아동용 도서인 『쓰나미』로 미국 아동학습협회가 주는 아동서적상을 수상한다.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작은 어촌에 사는 지야와 산 위 농촌에 사는 소년 기노가 그 주인공이다. 기노의 마을에 가까운 화산이 분화해 해저의 물이 넘쳐 쓰나미가 발생한다. 이 쓰나미는 기노의 마을을 덮쳐 지야만을 남기고 가족을 사라지게 했다. 고아가 된 지야는 기노의 집의 양자가 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과 자신이 살았던 어촌을 잊을 수 없어 성인이 되어 다시 어촌으로 돌아간다.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쓰나미』(초판본 1950)의 표지에는 “SCAP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Information Library”의 날인이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전후 일본의 전국 주요도시에 설립된 CIE도서관(연합국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에 수록된 것을 의미한다.⁶¹⁾

작품 『쓰나미』는 미국에서 1956년 9월 인기프로그램인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Inc) “The Alcoa Hour”에 실사화로 방영되었다. “The Alcoa Hour”는 앤솔로지 텔레비전 시리즈(Anthology Television series)라고 하는데 한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방영하는 통상의 드라마와는 다르게 격주로 다른 드라마를 방송하는 채널이었다. “The Alcoa Hour”는 문학작품을 실사화한 드라마가 많았다.⁶²⁾ <쓰나미>에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 기모노를 입고 가츠라를 쓰고 연기했으며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펄 벅의 『쓰나미』가 미디어에서 호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영화감독 테드 다미엘스키가(Tad Danmielewski, 1929~1993)가 그녀에게 영화제작을 타진한다.

61) 鈴木紀子,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4面.

62) 위의 글, 83面.

영화 배경이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펄 벅은 1960년 5월 24일 새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그녀의 1차 방일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녀가 방일하기 전인 1960년 5월 18일 기사에 “펄 벅이 감독 테드와 4주간 체제하고 영화회사의 협력으로 영화를 찍는다”⁶³⁾고 알렸다. 하지만, 펄 벅은 남편 웰시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동년 8월에 다시 방일하여 영화작업에 착수했다.⁶⁴⁾

1차 방일(1960) 다음 날 도쿄 제국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펄 벅이 이야기 한 것은 일본에 와서 기쁘다는 점, 일본인의 친절함에 감사하다는 것, 일본의 이야기인 『쓰나미』의 영화화 작업을 기쁘게 보고한다는 점 등이었다. 이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영화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패전 후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쓰나미』를 읽었고 희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자연재해 극복의 서사가 전후 일본인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일부분 해소해준 셈이다.



〈그림 2〉 방일 때 여류작가모임,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 우노 지요(宇野千代)와 함께⁶⁵⁾

63) 「パール・バック女史ら来日」, 『毎日新聞』, 1960.5.18.

64) 펄 벅의 방일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보도되었다. 「펄 벅 여사 동경에」, 『경향신문』, 1960.8.24, 4면.

65)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豪華版 世界文學全集-36 パール・バック』, 講談社, 1976, 455面.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간 펄 벅은 1960년 8월 22일 2차 방일을 했다.⁶⁶⁾ 그러나 미디어는 첫 방일보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방일 목적이 1차 방문에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펄 벅의 44일간의 여정은 일본 미디어보다는 일본의 로케기행과 남편과의 추억을 써내려간 『지나간 사랑에의 다리』, 일본을 보고 느낀 에세이집 『내가 본 일본』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지나간 사랑에의 다리』에는 일본 로케 날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남편의 추억과 로케기행이 섞여 있어 일본에서의 단편적 에피소드만 포착할 수 있다.

2차 방일의 일정을 살펴보면, 펄 벅은 로케여행을 떠나기 전 지인들을 만나거나 일본 작가와 자리를 가진다. 공식적인 행사와 일본작가의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펄 벅이 스스로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 오카무라 하나코(村岡花子), 우노 지요(宇野千代) 등 일본 여류작가 10인 정도가 모여 세계평화와, 혼혈아 문제에 대해 펄 벅과 대화를 나눴다.⁶⁷⁾ 이후 펄 벅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이 살고 있는 가마쿠라(鎌倉)에 가서 일본 펜클럽 회장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오사라기 지로(大仏次郎)를 만났다.⁶⁸⁾ 펄 벅은 제작관련자들과 함께 도쿄에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갈아타고 7시간이나 걸려 나가사키 운젠(雲仙)에 도착한다. 펄 벅이 나가사키 오바마(小浜)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제작을 보기 위해 많은 일본인이 방문했다. 펄 벅은 44일간 촬영에 늘 동행하면서 영화 제작과정을 유심히 살폈다. 영화제작이 결정되었을 때 펄 벅은 배역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 하야카와 셋슈(早川雪舟, 1886~1973)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하야카와는 1910년 이미 미국영화계에서도 알려진 국제적 배우로 일본과 미국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존재였다.

영화는 무사히 촬영되어 1961년에 완성해 개봉된다. 그러나 일부 시사회를 빼고 아오모리(靑森)에서 한번 상영되고 다른 곳에서는 상영되지 않았다. 이 영화는 제작은 했으나 상영되지 않은 “환상의 영화”로 남게 되었고, 운젠 시민이 이 영화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2005년 10월이 되어서였다. 이와 같이 영화는 제대로 상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쓰나미』 도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연합국 점령 하에 독일의 ‘재방향

66) 「펄 벅 여사 동경에」, 『경향신문』, 1960.8.24, 4면.

67) 田中睦夫, 「日本に詩を求めるーパール・バック女史」, 『毎日新聞』, 1960.10.17, 7면.

68) パール・バック, 龍口直太郎 譯, 『過ぎし愛へのかけ橋』, 河出書房新社, 1963, 47면.

프로그램⁶⁹⁾으로 번역되어 독일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있었다. 1950~1960년대 미국은 소련과 패권을 둘러싸고 도서뿐 아니라 시각적 효과가 있는 영화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련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본, 독일 등에 미국을 침투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펄 벅의 영화 <쓰나미> 작업은 미국인이 일본의 재해와 극복에 관심을 가지고 쓴 소설의 영화화라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동맹의 강화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원작자인 펄 벅은 『대지』의 중국 전문가라는 이미지에 일본의 『쓰나미』의 이미지를 더해 ‘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영화는 상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안 되었지만 영화 제작 과정, 그 실천의 수행성을 통해 일본인에게 제한적이지만 미국인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어서 1966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이루어진 펄 벅의 3차 방일은 일본의 “혼혈아 구원”을 위해서였다. 그녀가 방일을 결정하게 된 주요 계기는 1966년 5월 하와이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교수 와가츠마 히로시(我妻洋)가 펄 벅을 방문해 일본의 혼혈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⁷⁰⁾ 펄 벅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으로서는 미국인이 남긴 아이들에게 책임을 느낍니다. 일본의 혼혈아는 훌륭한 일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편견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불행한 혼혈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왔습니다.”⁷¹⁾ 라고 방일 목적을 밝혔다. 그녀는 혼혈아 조사에 일본의 협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69) 『쓰나미』는 1947년부터 1963년에 걸쳐 한국(1948), 캐나다(1947) 독일(1950), 오스트리아(1950), 스페인(1953), 유고슬라비아(1962), 덴마크(1963)에도 번역, 출판이 허가되었다. 특히 일본과 같은 전후연합국에 점령하에 있던 독일에서는 이 작품은 전후의 사회 「재방향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일은 즉, 적어도 전후의 일본과 독일에서는 『쓰나미』가 점령당국에 의해 일본 및 독일사회의 민주화 정책에 있어 유효한 것을 근거로 나타낸다. 鈴木紀子,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84面.

70) 「パール・バック女史來日一混血兒に救援の旅 日本・韓國の實情調査」, 『朝日新聞』, 1966.11.1, 14面.

71) 위의 글, 14面.

이렇게 시작된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일 펄 벅은 사와다 미키(澤田美喜)가 가나카와 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샌더스 홈(エリザベス・サンダースホーム)을 방문했다.⁷²⁾ 사와다 미키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혼혈아 구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펄 벅 전문가 피터 콘은 펄 벅이 전후 오이소(大磯)의 자택에 엘리자베스 샌더스 홈을 설립하고 일본여성과 미국장병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고아를 돌보는 사와다 미키를 알게 되는 것은 1961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⁷³⁾ 그러나 사와다와 펄 벅의 관계는 피터 콘이 말한 1961년보다 훨씬 이전인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와다가 미국 뉴욕에서 펄 벅을 만나 일본의 혼혈문제를 상담한 것⁷⁴⁾이 계기였다. 펄 벅은 1964년에 세운 ‘펄 벅 재단’⁷⁵⁾에서 사와다가 운영하는 성스테파노농원(聖ステパノ學園)에 2년간 5만 달러(1,800만엔)를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사와다에게 각국의 혼혈아 학생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었다.⁷⁶⁾

펄 벅은 11월 3일에는 야마나시 현에 살고 있는 불문학자 히라노 이마오(平野威馬雄)를 방문했다. 혼혈아인 히라노는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레미의 집’을 세웠다. 히라노는 아버지 없는 혼혈아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다수의 혼혈아를 돌보고 있었다. 히라노의 혼혈아 구원활동에 관심을 가진 펄 벅이 직접 방문하여 ‘레미의 집’에 원조를 약속했다.⁷⁷⁾ 11월 7일에는 펄 벅이 일본에 ‘펄 벅 교육기금’을 설립해 혼혈아가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⁷⁸⁾ 그녀는 혼혈아가 일본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취직이 어려운 현실이

72) 「わたしは混血児のお母さんーパール・バック女史サンダースホームへ」, 『朝日新聞』, 1966.11.2, 3面.

73) 피터 콘, 丸田浩外6名, 『パール・バック傳(上巻)-この大地から差別をなくすために』, 舞字社, 2001, 6面.

74) 「パール・バック女史を訪ねてニューヨークにて澤田美喜」, 『毎日新聞』, 1952.10.8, 4面.

75) 1964년 1월 그녀는 인도주의적 사업, 특히 웰컴하우스 입양 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로 필라델피아 주로부터 유명한 짐벨상을 받았다. 수상과 함께 1,000달러의 상금을 받은 뒤 그녀는 미국인 혼혈아 이들을 도울 펄 벅 재단이라는 전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중이라고 선언했다. 또 그녀는 짐벨상의 상금을 그 새 계획의 첫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펄 벅 재단은 2월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되었다.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558면.

76) 「パール・バック女史約束一打合わせ澤田三喜さん帰る」, 『毎日新聞』, 1966.11.21, 14面.

77) 「「レミの家援助しますーパール・バック女史平野威馬雄氏に約束」」, 『朝日新聞』, 1966.11.4, 14面.

78) 「“混血児に奨学金をーパール・バック女史が計畫”」, 『朝日新聞』, 1966.11.8, 14面.

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수 혼혈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비행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혼혈아와 관련된 주요 시설을 돌아보면서 실태를 조사한 펄 벅은 11월 8일에 귀국하였다.

이처럼 1966년 펄 벅의 방문은 일본인에게 소설가보다는 사회활동가, 시민운동가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다나카 무츠오(田中睦夫)⁷⁹⁾는 1960년에 방문했을 때도 펄 벅을 만났고 1966년 방일 때도 만난 인물이다. 펄 벅은 다나카에게 자신이 사회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했다. 펄 벅은 “세계는 작가가 실제의 사회활동에 나오는 것에 대해 찬비양론이 있지만, 동양과 미국 두 세계의 관심을 가진 나로서는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⁸⁰⁾라고 말했다. 펄 벅은 미국이 동양에 야기한 사회문제에 작가이자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셈이다. 1967년의 4차 방일은 1966년 혼혈아 문제 해결의 연장선이었지만 미디어에 거의 실리지 않았다. 펄 벅은 1967년 6월 16일⁸¹⁾ 일본인 혼혈아 교육 원조를 위해 일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어 도쿄 미나토(港)구 미타(三田)의 레스토랑에서 일본인들을 만났다. 펄 벅과 동행한 재단 이사장 테오도어 해리스(Theodore F. Harris)는 혼혈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펄 벅은 일본에 혼혈아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1966년 11월 1~8일 펄 벅의 일본 방문 직전,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가 일본을 방문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체류했다. 이때 사르트르는 유명한 지식인 참여론을 펼친다. 당시 사르트르는 일본인 작가가 이미 베평련이나 왼쪽 관련 시민단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채 참여지식인이 되라고 강조했다.⁸²⁾ 이러한 사르트르와 비교해보면 펄 벅은 노벨문학상 작가 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일본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펄 벅은 혼혈아에 관심을 갖기 이전, 예를 들면 戰前に 제2차

79) 다나카 무츠오는 영문학자로 일본에서 펄 벅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펄 벅은 다나카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과 일본이 친구로 지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パール・バック女史死去一美しい日本」, 『朝日新聞』, 1973.3.7, 23面.

80) 田中睦夫, 「パール・バックの文學一本領發揮はやはり東洋物」, 『朝日新聞』, 1966.11.5, 9面.

81) 「パール・バック女史園み 混血兒対策を話そう」, 『朝日新聞』, 1967.6.17, 16面.

82) 여기에 대해서는 양아람, 「1966년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445~482면 참조.

세계대전 중 일제인 수용에 대해 반대하여 이시가키 아야코(石垣綾子)⁸³⁾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힐 경우 자신이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⁸⁴⁾ 또한 전후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화상을 입은 스물네 명의 젊은 일본 여성들, 이른바 ‘히로시마 처녀들’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그녀는 뉴욕으로 가기도 했다.⁸⁵⁾ 게다가 자신의 친딸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펄 벅은 사회차별에 민감했다.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계에 대한 작가의 윤리적 책임과 미국의 일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이 혼혈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의 문제의식과 공명하면서 전쟁의 산물이자 사회의 약자인 혼혈 구호로 이어진 셈이다. 작가에서 참여지식인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국면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전쟁의 상흔과 미국과 동양 사이의 혼혈아 문제에 눈을 뜬 실천적 지식인 펄 벅이 일본에 왔을 때 혼혈아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다. 펄 벅이 일본인과 시설을 대면하면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지원 형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펄 벅은 1964년 혼혈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펄 벅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과 한국 등의 혼혈아 입양과 생활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방일 이후 1966년 12월 아사히신문사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혼혈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충고나 협력을 구하려고 방문했는데”,⁸⁶⁾ 펄 벅이 직접 바라본 일본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었다. 경제적 상황이 좋은 만큼 일본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미국과 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것이 바람직했다. 혼혈아 구제시설을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남베트남 등 아시아 7개 국가에 만들 계획이지만 당장은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밝힌 것⁸⁷⁾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1964년 미국에 펄 벅 재단을 설립한 그녀는 1965년에 한국에 재단의 지부를 설립하지만 일본에는 지부를 설립하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이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부 설치 없이 경제적인 후원만 이루어진다. 일본은 펄 벅의 전적인 혼혈아 원조를 바랐지만 그녀의 결정은 일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

83) 펄 벅은 이시가키(石垣)의 영문소설 「휴식 없는 파도」에 서평을 써주었다. 石垣綾子, 「パール・バックの手紙」, 『朝日新聞』, 1988.8.7, 32면.

84) 石垣綾子, 「パール・バックの手紙」, 『朝日新聞』, 1988.8.7, 32면.

85)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534면.

86) 「日・米混血兒救うためにパール・バック女史の呼掛け」, 『朝日新聞』, 1966.12.7, 11면.

87) 「パール・バック女史が立寄る」, 『朝日新聞』, 1967.5.25, 14면.

정리하면, 1960년 소설 『쓰나미』의 영화제작을 위한 방일은 미일합작회사의 초청이었고, 1966년 혼혈아 구호를 위한 방문은 초청 형식이 아니라 펄 벅 개인의 방문이었다. 일본문학자, 출판사, 대학, 문화단체의 초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르트르나 포크너의 초청방문과는 사회적 관심이 전혀 달랐다. 미디어가 펄 벅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보도한 것은 1966년 혼혈아 구원이었다. 기사는 펄 벅의 혼혈아 지원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런데 미국, 펄 벅, 일본의 관계만 생각한 일본인과 다르게 펄 벅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와 미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혼혈아 구호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지부 설치 없이 개인적 인맥을 통한 경제적 후원과 입양 지원 등이 원조 형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터부시하던 혼혈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펄 벅이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활동은 ‘선교사의 딸’이라는 이미지와도 잘 결부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펄 벅 개인의 의도와 별개로 ‘상처 입은 대지’를 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미 당국의 문화 외교의 목적에 일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의 대외활동은 전후 일본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했다. 게다가 1973년에 사망하기 전 1966, 1967년에 일본에 방문했으며, 1968년 혼혈아를 다룬 마지막 소설 『신년』을 쓴 것을 감안하면 당대 일본인에게 펄 벅은 1960년대 중후반도 여전히 현역 작가였으며 사회운동가이자 따뜻한 감성의 ‘혼혈아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 일본인에게 펄 벅은 인기도나 인지도와 별개로 단순한 『대지』의 작가가 아니었다.

그 결과 일본 방문 후 펄 벅의 흔적은 1967년 가와데(河出) 출판사 컬러판 세계문학전집⁸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펄 벅이 1960년 방일한 당시 엘리자베스 샌더스 홈을 방문해 아이들과 놀고 있는 사진과, 엘리자베스 샌더스 홈에서 남편의 부고를 듣는 사진이 실렸다. 사와다 미키와 펄 벅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컬러로 해서 미국과 일본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1976년 고단샤(講談社) 호화판 세계문학전집의 해설에도 펄 벅의 방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책에는 펄 벅의 혼혈아 지원이나 구체적인 방일 활동내용은 소개되지 않는다.⁸⁹⁾ 1978년 슈에이사(集英社) 세계문학전

88)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カラー版 世界文學全集34 パール・バック 大地』, 河出書房, 1967, 632~634面.

89)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豪華版 世界文學全集36 パール・バック』, 講談社, 1976, 455面.

집의 『대지』⁹⁰⁾에 비로소 1960년 일본 방문 관련 ‘연보’가 실린다. 뒤늦지만 이 세계 문학전집을 접한 일본 독자들은 펄 벅의 방일 사실과 조우하고 그 존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다.

IV. *The People of Japan*(1966)과 펄 벅의 일본인관

지금까지 펄 벅의 작품과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인의 펄 벅 인식, 對美관 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펄 벅의 대일 인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본인은 중국을 잘 포착한 펄 벅이 일본의 특성과 성격도 잘 파악하는지 궁금했다. 펄 벅은 전전 일본에 잠시 거주 경험이 있다. 1927년 3월에 국민혁명군이 남경에 들어와 외국인을 습격했기 때문에 펄 벅은 나가사키(長崎) 운젠(雲仙)에서 6개월 정도 피난했다.⁹¹⁾ 그래서 펄 벅의 일본 체류는 1927년, 1960년, 1966, 1967년이 되지만 지식계의 정식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포크너나 사르트르와 달리 펄 벅의 직접적인 ‘육성 기록’이 미디어에 잘 남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 펄 벅이 1960년 방일 이후 출간한 *The People of Japan*(1966; 일본어 역, 『내가 본 일본』(2013))이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제한적으로 살펴본다.

펄 벅이 방일 전 일본을 다룬 작품에는 전전에 출판된 『애국자』(1939), 전후의 『실비아』(1952)와 『숨은 꽃』(1952)이 있다.⁹²⁾ 『애국자』는 1926년부터 1938년 젊은 중국인 우이완의 삶과 중일전쟁을 다루고 있다. 소설의 배경이 중국-일본-중국으로 이동하며 정치적 사건이 남녀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배경이 일부 일본을 다루지만 사랑이야기인 『애국자』는 일본인관을 다루는 데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인의 주목을 받은 작품은 『숨은 꽃』이다. 이 작품은 입하 여부를 신문에 알릴 정도로 일본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⁹³⁾ 『숨은 꽃』은 일본을

90) パール・バック, 小野寺健 譯, 『集英社版 世界文學全集85 パール・バック』, 集英社, 1978, 451面.

91) ピーター ユン 丸田浩外6名, 『パール・バック傳(上巻)-この大地から差別をなくすために』, 舞字社, 2001, 4面.

92)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大地：三部作』(世界文學全集 67), 河出書房新社, 1961, 1面.

93) 「パール・バックの新作小説入荷」, 『毎日新聞』, 1953.4.24, 8面.

배경으로 미국인과 일본인의 민족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사랑의 어려움과 파국을 그리는 한편으로 혼혈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⁹⁴⁾이고 반혼혈법이나 그 영향 등⁹⁵⁾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이 다도를 케케묵은 전통이라며 비웃지만 닥터 사카이는 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발끈했다. 그는 일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과거의 관례와 관심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었다. 다도에서는 예술과 자연에 관한 명상이 유쾌한 사교와 맛난 음식과 적절히 어우러졌다.⁹⁶⁾

오늘 마쓰이 씨의 다실에 놓인 붓꽃은 봉오리가 맺힌 것과 활짝 핀 것, 이렇게 두 줄기였는데 각각 길고 짧은 잎사귀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전혀 꾸미지 않은 듯 보이는 잎사귀와 꽃이지만 실은 극진한 정성을 기울여 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간결함이 자연을 넘어서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완벽한 간결함은 가장 교양 있고 세련되었음을 뜻한다. 완벽하게 성숙된 마음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곧 간결함이었다.⁹⁷⁾

『숨은 꽃』은 3/4이 미국 이야기이고 1/4이 일본의 분량이다. 일본이 서사화 된 부분을 보면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쫓겨난 일본인 의사이다. 그가 일본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 일본 전통과 문화를 집착하고 습득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의 딸이 일본에 주둔한 미군과 사랑에 빠지는 대목이 서사화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일본문화에 대한 태도를 서사화하는 작가 펄 벅의 지식이다. 펄 벅은 일본의 전통문화인 다도와 꽃꽂이를 소설에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일본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에가와(江川英)는 펄 벅이 『숨은 꽃』에서 소설의 배경으로 도쿄, 교토, 나라, 운젠 등의 도시를 설정하고 일본에

94) 김효원, 「펄 벅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 19-1,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00, 48면.

95) 佐藤重夫, 「Pearl S. Buckを振り返って(まとめ)」, 『中央學院大學教養論叢』 5(1), 中央學院大學, 1992, 35면.

96) 펄 벅, 김소연 역, 『숨은 꽃』, 길산, 2011, 22면.

97) 펄 벅, 김소연 역, 앞의 2011 책, 36~37면.

서 서양식 생활이 공존하는 마쓰이(松井)가를 형상화한 것을 두고 일본인에 호의를 가지고 소설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⁹⁸⁾

여기서 더 나아가 펄 벅은 1960년대 방일 이후 3차 방일한 1966년에 『내가 본 일본인(私の見た日本人)』을 냈다. 이 책은 펄 벅의 전전과 전후의 일본 체류의 경험과 인식이 결합한 산물이다. 이 책의 감수자인 마루타(丸田)는 펄 벅이 중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관찰하는 눈이 보통의 미국인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펄 벅을 단순히 親日家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속속히 아는 知日家⁹⁹⁾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펄 벅이 보는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의 일본인관! 희망에 넘쳐 발전을 망치소리가 울리는 일본
각지를 방문해 스스로의 체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일본인을 엮은 환상의 随想
集, 사진 다수!¹⁰⁰⁾

펄 벅의 『내가 본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pp.5~8(4페이지)) 펄 벅이 일본 나가사키로 이주한 경위, 제2장(pp.10~22(13페이지)) 일본의 윤곽-나가사키의 추억, 대도시 도쿄에 대한 인상, 제3장(pp.24~51(28페이지)) 일본인의 二面性, 일본의 개항과 군사대국의 과정, 제4장(pp.54~66(13페이지)) 전전의 일본과 전후의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 제5장(pp.68~99(32페이지)) 전후에 가장 많은 변화는 ‘여성’이라고 지적, 제6장(pp.102~114(13페이지)) 일본의 가족은 계층제도이고 지위에 따라 칭호가 다름, 제7장(pp.116~125(10페이지)) 일본인의 이중인격, 게이샤(芸者)와 창기의 구분, 제8장(pp.128~155(28페이지)) 일본인의 도덕관과 규범, 제9장(pp.158~166(9페이지)) 일본인의 의리와 명예, 일본인의 높은 자살률, 제10장(pp.168~191(25페이지)) 감정을 억누르는 일본인, 제11장(pp.194~201 (8페이지)) 일본인의 직업, 재일조선인, 국제결혼, 혼혈아, 원폭피해자에 대한 차별 지적, 제12장(pp.204~209(6페이지)) 일본인이 마츠리(축제)를 좋아하는 것은 미를 사랑하는 마음

98) 江川英, 「パール・バックと日本人」, 『相模女子大學紀要』 34, 1971, 相模女子大學, 19面.

99) パール・バック, 丸田浩 譯, 『私の見た日本人』(1960), 國書刊行會, 2013, 259面.

100)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과 연결, 제13장(pp.212~217(6페이지)) 스모와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인, 제14장(pp.220~246(27페이지)) 북방영토와 오키나와의 혼혈문제에 당면한 일본, 제15장(pp.248~253(6페이지)) 일본인은 천황제 폐지에 부정적, 계급제도를 인정하지만 정치체제는 민주제라는 모순을 지적했다.

총15장의 『내가 본 일본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5장 일본여성의 변화이다. 또한 제3장 일본인의 이면성과 제8장 일본인의 도덕관과 규범은 펄 벅이 일본인의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펄 벅은 ‘일본인의 이중성, 차별, 일본여성의 변화’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펄 벅은 1966년 『내가 본 일본인』에 이어 1971년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쓴 『내가 본 오늘 中國』을 출간했다. 따라서 두 책을 참고하여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점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일본인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보자. 펄 벅은 일본의 공격성과 예술미에 주목한다. 그녀는 일본이 1894~1895년 청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폐쇄적, 공격적이고 잔혹해지면서 그에 따라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펄 벅은 예측 불가능한 지진, 태풍, 쓰나미 등 자연이 초래하는 위협이 일본인의 마음에 절망과 흥폭성을 낳게 하고 그 반작용으로 예술이나 종교적인 힘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¹⁰¹⁾ 펄 벅은 “일본인은 심각하고 시적이고 비극적인 종교 감정의 소유자”¹⁰²⁾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정원수나 화초를 즐기는”¹⁰³⁾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펄 벅의 분석이 전쟁과 자연재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쉽게 파악된다.

두 번째로 차별과 관련해, 펄 벅은 학대받은 사람들(중국의 빈농, 유색인종, 여성일반, 정신·신체장애자, 혼혈고아, 핵피폭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복지개선을 위해서 싸운 인물로 평가된다.¹⁰⁴⁾ 미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라나 스스로 “정신적 혼혈아”라고 지칭¹⁰⁵⁾한 펄 벅은 일본사회의 차별에 예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일본사회에

101)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28面.

102) 펄 벅, 金宇鐘 역, 『내가 본 오늘 中國』(1971), 世宗閣, 1972, 125면.

103) 위의 책, 126면.

104) ピーター ユン, 丸田浩外6名, 『パール・バック傳(下卷)-この大地から差別をなくすために』, 舞字社, 2001, 400面.

105)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대지』, 소담출판사, 2010, 423면.

만연한 차별을 4종류로 분류했다.¹⁰⁶⁾ 피차별 부락출신, 재일조선인, 혼혈아, 원폭피해자가 해당된다. 일본에는 피차별 부락출신이 100만이 있지만 일반 일본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돼 살고 있었다. 직업에 대한 차별도 언급된다. 동물의 살을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계급이 낮아 보통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가축 등을 다루는 직업은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받는 존재가 많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전쟁 중이나 일본의 조선 지배 때 이민 온 재일조선인을 열등민족으로 취급하였다. 재일조선인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자, 쓰레기 수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야쿠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펄 벅은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아시아 민족이나 피부가 검은 민족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피부가 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펄 벅은 일본의 혼혈아 차별을 고찰했다. 펄 벅은 일본인이 역사적으로 타민족과 섞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섞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꼽는다. 미국인을 한 부모로 태어난 혼혈아처럼, 아버지가 일본인이 아닌 경우 훨씬 차별이 있다. 일본에서 혼혈아와 재일조선인의 차별의 근저에는 피부색 보다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결여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맺어진 경우 국제결혼을 용인하지 않았다. 펄 벅은 혼혈 문제 중에서도 차별이 가장 심한 경우는 흑인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사회적 현안은 혼혈아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도 있었다. 펄 벅은 특히 원폭 투하를 미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불행’이라고 말했다.¹⁰⁷⁾ 일본은 외국인 차별도 심하지만 원폭 피해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다. 그 예로 원폭피해자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나온다. 일본인은 원폭피해자가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방사선을 쬔 사람들을 공포의 씨앗으로 여긴다. 원폭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본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원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 발생한 미나마타 병의 피해자에게도 해당된다.¹⁰⁸⁾ 펄 벅은 혼혈아 차별을 매개로 일본사회의 차별의

106)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198~220面.

107) 「戦後十年の日本の青年へーパール・バック女史の言葉」, 『毎日新聞』, 1955.8.13, 夕刊2面.

108)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258面.

문화와 양상을 포착한 셈이다.

세 번째로 펄 벅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보수적 일본여성이 변화하는 것을 체감했다. 과거 펄 벅은 일본 여성은 한 남성의 아내가 되든지 예기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여성이 아내가 되기로 했다면 한 남성의 아이의 어머니, 남자 집의 가정부가 되는 것이다. 일본여성은 남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남편보다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여성들은 일본사회에서 갑갑한 제약에 놓여있지만 반항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여성은 사회에서 남성우위를 인정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여전히 여성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1960년 방일 때 펄 벅과 다나카의 대화에서 일본여성관의 변화가 확인된다. 펄 벅은 그에게 “일본에 와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변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되어 복장도 동작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¹⁰⁹⁾라고 전했다. 펄 벅은 일본 여성이 예전에는 순종적 이었지만, 지금은 놀랄¹¹⁰⁾ 정도로 쾌활하고, 유능하고, 외향적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펄 벅은 일본남성이 지금까지도 남존여비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지만 일본여성이 전보다 자유롭고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난 것처럼 솔직하다고 파악했다.¹¹¹⁾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펄 벅이 일본문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차별’에 대한 시각을 상세하게 나누어 『내가 본 일본인』에 정리한 것은 훌륭하다. 다만, 펄 벅이 가지고 있는 일본관은 『내가 본 오늘 中國』의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글에서 훨씬 잘 드러난다. 펄 벅은 일본의 성격을 대륙과 섬나라의 차이인 지정학적 논리로 파악하였다. 일본은 같은 섬나라인 영국과 기질이 비슷하며 영국인은 중국보다 일본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펄 벅은 서로 다른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할 때 민족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훨씬 중요한 조건은 ‘지리적 조건’이며 자연의 다양성이 다면적인 국민성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바다가 사방을 에워싼 나라인 일본은 비좁은 토지, 부족한 식량,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격렬한 기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논리이다.¹¹²⁾

109) 「來日中のノーベル賞受賞作家—パール・バック女史」, 『毎日新聞』, 1960.5.29.

110)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70面.

111) 「펄 벅 여사가 말하는 아세아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1960.12.3, 4면.

112) 펄 벅, 金宇鐘 譯, 『내가 본 오늘 中國』(1971), 世宗閣, 1972, 127면.

『내가 본 오늘 中國』은 일본인의 성격을 중국인의 성격과 비교하면서 세세하게 정리한 점이 흥미롭다. 펄 벅은 일본여성이 얼굴은 귀엽지만 스타일이 좋지 않은데 중국여성은 대체로 훌륭한 스타일의 소유자라고 썼다. 또한 중국인은 낙천적이고 유머가 있으나 일본인은 근면하고 유머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 책은 펄 벅의 일본인관을 더 자세히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편중된 사고를 보여 준다. 일본인을 묘사할 때 “험섬하지 못한 일본인”, “불품없는 네모진 얼굴”, “두터운 손발”, “납작한 코, 작은 눈”으로 표현하며 일본인의 외모를 비하한다.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은 이를 대표적 일본인 표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훌륭한 스타일을 소유하고 유머가 있는 중국인”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본 일본인』이 방일 이후 일본의 우수한 점을 서술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가 본 오늘 中國』에는 일본과 중국을 상호 비교하면서 작가의 더 솔직한 심정과 관점이 표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내가 본 일본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본 일본인』을 번역한 고바야시 마사코(小林政子)는 펄 벅이 일본과 일본인을 직접 보면서 미세한 점까지 관찰한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펄 벅이 ‘의리’와 ‘인정’을 분석하면서 일본인의 二面性을 해석하고 일본인 성격의 二重性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¹¹³⁾ 하지만 『내가 본 일본인』은 1966년에 영어로 나왔고 2013년에야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현대를 사는 번역자와 감수자가 과거 펄 벅의 시선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과거의 인식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저자의 시선이 일부분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당대를 살았던 나가이(長井)는 1976년 무렵, 『내가 쓴 일본인』은 루스 베네딕트가 거론한 일본인론을 답습¹¹⁴⁾할 뿐이고 1960년 안보운동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펄 벅이 1960년 방일했을 때 “전학련의 학생은 너무 째미 많다. 그래서 저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나가이는 그녀가 부정확한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한다.¹¹⁵⁾ 여기에는 미국과의 이해관계, 민족감정,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겠다.

113)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1960), 國書刊行會, 2013, 261面.

114) 長井保, 「パール・バックの目」, 『紀要』(4-5), 上田女子短期大學, 1976, 78面.

115) 위의 책, 83面.

결론적으로 일본인 독자의 호불호 문제와 별개로 펄 벅의 두 권의 책(1966, 1971)이 당대 미국인의 일본인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내가 본 일본인』과 달리 원서가 나온 지 1년 만에 곧바로 일본어로 번역된 『내가 본 오늘 中國』은 일본인에게 펄 벅의 일본·중국에 관한 비교문화론적 인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V. 나가며: 상처 입은 ‘대지’, 혼혈아의 어머니

펄 벅은 1960년대에 1960년 영화 <쓰나미> 촬영을 위해, 1966년과 1967년에는 혼혈아 구원활동을 위해 방일했다. 펄 벅의 방일은 개인적 방문의 성격이 강해 1950년대 일미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포크너의 정치적 방일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 펄 벅의 입장에서 1960년대 일본과 한국 등의 방문은 자신의 사회활동 영역을 중국에서 아시아로 넓힐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기도 했다.¹¹⁶⁾

펄 벅의 대표작 『대지』는 일본인에게 애독되었지만 관심에 비해 적절한 비평을 받지 못했다. 일본에서 이 작품은 문학적인 평가보다는 중국, 미국에 관한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왕룽의 2대를 그린 『아들들』(1932), 3대를 다룬 『분열된 일가』(1935)는 제1부작인 『대지』의 명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출판업계는 『대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1932), 『분열된 일가』(1935) 3부작을 정리¹¹⁷⁾해 『대지』로 판매하여 판매부수를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

116) 펄 벅은 1960년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1960년 11월, 조선일보와 여원사의 초청으로 펄 벅은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약 열흘간의 펄 벅 방한은 민간단체에서 최초로 해외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이벤트이면서 『대지』로 세계적 명성을 얻는 노벨상수상작가의 국내방문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서울,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진행된 펄 벅의 강연회에는 수천 명의 청중이 모여들었고, 각종 일간지와 월간지는 한국을 방문한 펄 벅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에 바빴다. 펄 벅이 한국을 방문한지 한 달 만에 「노오벨수상작가평전-펄 벅의 인간과 예술」이라는 표제로 『대지의 신화』라는 이례적인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445면.

117) 田中久男, 『朝日百科 世界の文學』, 朝日新聞社, 2000, 20面.

『대지』의 2부작, 3부작인 『아들들』과 『분열된 일가』는 왕룽이야기의 연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각 권마다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예컨대 아라 마사히토(荒正人)는 『아들들』은 『대지』 속 여성들의 후반생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생을 전망하는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언급했다.¹¹⁸⁾ 『펼 벉』을 쓴 쓰루미 가즈코(鶴見和子)는 『분열된 일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혁명” 혹은 “반역”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언제라도 운명을 선택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¹¹⁹⁾ 번역자 오노데라는 『분열된 일가』의 주인공 왕룽이 펼 벉을 대신해 미국 문화의 우수한 점을 칭찬하거나, 미국 문화의 결점이나 추락하는 모습을 지적¹²⁰⁾한다고 말했다.

『분열된 일가』는 펼 벉이 중국과 미국의 변화를 포착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대 왕룽이 중국에서 보는 미국인 선교사와, 손자 왕룽이 미국에서 보는 선교사는 전혀 다르다.¹²¹⁾ 아직 개화되지 않은 중국에서 왕룽에게 선교사는 완전히 낯선 존재이자 대화가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개화된 청년 왕룽은 미국에서 선교사의 입을 통해 중국의 실상을 듣는다. 하루를 견디기 어려웠던 빈농 왕룽과 달리, 손자는 영어를 배우고 미국인의 시선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118)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大地』 世界文學全集 第34卷, 1967, 638面.

119)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앞의 1967 책, 640面.

120) パール・バック, 小野寺健 譯, 『大地』 (4), 岩波書店, 1997, 387面.

121) 왕룽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기가 무서웠으나, 그 남자의 이상한 눈과 무서운 코를 보자 겁이 나서 거절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왕룽은 그가 내미는 것을 마지못해 받았다. 그 서양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용기를 내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종이에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 남자는 살결이 하얗고, 십자로 된 나무에 걸려 있었다. 허리께에 걸친 형겅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입가에는 수염이 톱소루처럼 두 눈이 감겨 있어 아무리 보아도 죽은 것이 틀림없었다. 왕룽은 겁을 먹은 채 그 그림의 남자를 보았으나 점점 그것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 그림 아래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었으나 도대체 알 도리가 없었다(『대지』, 153면). 선교사는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였다. 입매가 침울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두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이윽고 그는 강연을 시작했다. 중국의 빈민, 기근, 팔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예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며, 빈민굴, 그 밖의 불결하고 처참한 생활상을 늘어놓았다. 위안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 이어서 선교사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중국의 실상을 영화로 보여주었다. 울며 애걸하는 거지 떼와 얼굴이 문들어진 문둥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배만 볼록 나온 어린아이들, 혼잡한 거리,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다음 장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부유하게 자란 위안으로서 보지도 못한 비참한 광경들이었다. 펼 벉, 장왕록·장영희 공역, 『분열된 일가』, 소담출판사, 2010, 196면.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사라지기도 전에 배는 부두에 닿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배 안으로 달려와서 승객들의 짐을 지려고 북적거렸다. 배 밑에서는 나룻배를 띄운 거지들이 장대 끝에 동냥 주머니를 달고 뱃전에 서 있는 선객들 앞에 들이대며 구걸을 했다. 대부분 병자와 불구자들이었다. 한편 노동자들은 옷통을 벗은 채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백인 여자들을 마구 헤치며 뚫고 들어갔다. 여자들은 놀라며 노동자들로부터 몸을 피하려고 애썼다. 어떤 여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모두가 그들의 불결함과 땀과 천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위안은 같은 동포인 노동자들과 거지들을 보면서 창피함을 느꼈다.¹²²⁾

6년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끝낸 후 고국으로 돌아간 왕원은 중국의 실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결국 왕원은 중국에 돌아와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지만 『대지』만으로 보지 못했던 중국과 미국의 변화를 『분열된 일가』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 그가 배에 내려 처음 본 중국인은 ‘나룻배를 띄운 거지들’, ‘구걸하는 사람들’이었다. 왕원은 노동자들과 거지들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당국을 원망했다. 외국인들도 처음 볼 광경이 땀범벅이 된 거지들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펄 벅은 미국과 중국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문명화된 미국, 아직 전근대적인 중국을 스테레오타입화한다.

한편, 펄 벅 『대지』는 중일전쟁 이후 1938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 독자에게 읽혔다. 영어 원서 『대지』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지』를 처음 번역한 니 이타루는 전문번역가, 대학교원이 아니라 신문기자였다. 일본을 방문했던 에렌부르크의 번역이 동경외국어대학 러시아학과를 졸업한 동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¹²³⁾ 펄 벅의 『대지』는 외국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독자가 작품을 읽고 양서의 소개차원에서 번역되었던 셈이다. 『대지』를 번역한 오노데라도 처음엔 『대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했다.¹²⁴⁾ 『대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122) 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분열된 일가』, 소담출판사, 2010, 282면.

123) 양아람, 「1957년 소련 작가 에렌부르크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해빙」, 『동아시아문화연구』 77,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181~219면 참조.

124) 小野寺健, 「大地を翻譯して」, 『舞字抄通信—パール・バック傳 特集號①』, 舞字社, 2001, 2面.

번역가를 거쳐 수정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르트르의 『구토』를 번역한 시라이 코조(白井浩司)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수정을 거듭하여 책을 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본에 펄 벅과 관련된 유명 번역집단, 출판사, 교육집단 등이 있었다면 펄 벅의 방문은 『대지』의 문학적 가치를 논하고 그녀의 작품이 일본에서 다시 유행하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방문은 그녀 작품의 문학적 가치보다는 ‘펄 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활동과 가치에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그녀가 남긴 일본 방문기인 『내가 본 일본』, 『지나간 사랑에의 다리』 또한 문학적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아 실제로 그녀의 방문이 ‘문학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방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펄 벅은 일본에서 미국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지』에는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다루고 있고 『아들들』은 미국을 다루지 않지만 『분열된 일가』에서는 미국에 유학한 손자의 시선을 따라 미국의 선진문명과 문화를 찬미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이 가진 이미지인 “제국”, “반소련”의 미국인을 그리지 않고 일본에 우호적인 미국인을 작품에 그렸다. 아시아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고자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인으로서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펄 벅의 활동 자체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일본인 독자는 펄 벅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호적 미국관을 형성해 나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다룬 『대지』보다 『분열된 일가』가 더 중요했던 셈이다. 미일합작영화 <쓰나미>의 제작 ‘과정’ 자체도 문화적으로 미국의 우호적 이미지를 일본사회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지만, 펄 벅이 일본에 방문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미일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표로서 각인될 수 있었다. 특히 펄 벅이 전후 일본과 미국의 부정적 관계를 상징하는 증표인 혼혈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혼혈인 구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후에 남긴 상흔을 함께 해결하는 모습이 일본인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졌다.

다만 펄 벅의 방문이 아쉬운 점은 방일 때 매우 제한된 사람들과 교류했다는 점이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영화제작사, 지인을 통한 작가, 일부 여성작가가 전부이다. 펄 벅이 일본 대중독자와 교류하는 순간은 없었으며, 일본 독자가 펄 벅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은 직접 영화제작 현장을 방문하거나 미디어로 간접적이었다. 펄 벅은 노벨 상문학상 수상 ‘작가’이기에 자신의 책을 읽은 독자와의 교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펄 벅의 입장에서든 외국독자가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과의 대화는 일본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비판’도 ‘대화’도 없는 펄 벅의 방문은 보통의 일본인들에게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는 펄 벅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은 일본의 학자들, 문학 관련 관계자들의 낮은 관심도 때문에 그 방문이 사회적으로 문화이벤트가 되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펄 벅의 방문과 혼혈아 구호활동은 1960년대 펄 벅 재단의 설립과 아시아 지원사업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당대 미국 재단(아시아재단, 록펠러재단 등)의 아시아국가 물적/인적 지원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좌라 할 것이다. 또한 남겨진 일본 인상기는 당대 펄 벅의 일본관을 나타내고 미국인에게 일본의 일부를 전한 소중한 기록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朝日新聞』

『朝日百科 世界の文學』

『演藝畫報』

『讀賣新聞』

『毎日新聞』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필 벅, 김소연 역, 『숨은 꽃』, 길산, 2011

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대지』, 소담출판사, 2010

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분열된 일가』, 소담출판사, 2010

필 벅, 장왕록·장영희 공역, 『아들들』, 소담출판사, 2010

필 벅, 金宇鐘 역, 『내가 본 오늘 中國』, 世宗閣, 1972

피터 콘, 이한음 역, 『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カラー版 世界文學全集-34 パール・バック 大地』, 河出書房, 1967

パール・バック, 大久保康雄 譯, 『大地: 三部作』 世界文學全集-67, 河出書房新社, 1961

パール・バック, 龍口直太郎 譯, 『過ぎし愛へのかけ橋』, 河出書房新社, 1963

パール・バック, 小林政子 譯, 『私の見た日本人』, 國書刊行會, 2013

パール・バック, 小野寺健 譯, 『大地』 (1)(2)(3)(4), 岩波書店, 1997

パール・バック, 小野寺健 譯, 『集英社版 世界文學全集-85 パール・バック』, 集英社, 1978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 (四), 新潮文庫, 1954

パール・バック, 新居格 譯, 『大地』, 第一書房, 1935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大地』 (上)(下), 講談社, 1975

パール・バック, 朱牟田夏雄 譯, 『豪華版 世界文學全集-36 パール・バック』, 講談社, 1976

ピーター ユン, 丸田浩外6名, 『パール・バック傳<上下卷>-この大地から差別をなくすために』, 舞字社, 2001

稻澤秀夫, 『アメリカ女流作家論』, 審美社, 1978

藤田文子, 『アメリカ文化外交と日本-冷戦期の文化と人の交流』, 東京文學出版會, 2015

山本正, 『戦後日米關係とフィランソロピー-民間財團が果たした役割, 1945~1975年』, ミネルヴァ書房, 2008

- 中國女性史研究編, 『中國のメディア・表象とジェンダー』, 研文出版, 2016
- 川島眞, 『シリーズ中國近現代史②近代國家への模索 1894~1925』, 岩波親書, 2010
- Harris, Theodore F, *Pearl S. Buck*, The John Day Company, New York, 1969
- Paul A. Doyle, *PEARL S. BUCK*, Twayne Publishers, 1965
- Pearl S. Buck, *A Bridge for Passing*, The John Day Company, Inc, 1962
-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김효원, 「펄 벅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 19(1),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00
- 양아람, 「윌리엄 포크너의 일본 방문(1955)과 문학·문화적 교류」,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 _____, 「1957년 소련 작가 에렌부르크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해빙」, 『동아시아문화연구』 77,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 _____, 「1966년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사르트르 수용」,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양영재, 「펄 벅의 소외와 문학전통」, 『동서비교문학저널』 46,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2018
- 江川英, 「パール・バックと日本人」, 『相模女子大學紀要』 34, 相模女子大學, 1971
- 吉原眞里, 「オリエンタリズムの修正・家庭性の再構築: パール・バックの『大地』における權威とジェンダー」, 『アメリカ研究』 30, アメリカ學會, 1996
- 鈴木紀子, 「『幻の映畫』をめぐって『大津波』日米合同映畫製作とパール・バック」, 『Otsuma review』 48, 大妻女子大學, 2015
- _____, 「アメリカと日本の架け橋に: パール・バック『大津波』と戦後冷戦期日米文化關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8,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8
- _____, 「冷戦期の『文學大使』たち: 戦後日米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における米文學の機能と文化的受容」, 『人間生活文化研究』 23, 大妻女子大學人間生活文化研究所, 2013
- 小野寺健, 「大地を翻譯して」, 『舞字抄通信—パール・バック傳 特集號①』, 舞字社, 2001
- 長井保, 「パール・バックの目」, 『紀要』 (4-5), 上田女子短期大學, 1976
- 佐藤重夫, 「Pearl S. Buck を振り返って(まとめ)」, 『中央學院大學教養論叢』 5(1), 中央學院大學, 1992
- 竹内好, 「鶴見和子パール・バック」, 『図書』 47, 岩波書店, 1953
- 川端理恵, 「Pearl S. Buckと障害をもつ登場人物: Disability Studiesの視点でThe Good Earth (1931)とSons(1932)を読み直す」, 『名古屋アメリカ文學・文化=Nagoya America literature/culture』 4, 名古屋大學アメリカ文學・文化研究會, 2016

Pearl Buck's Visit to Japan in the 1960s and Acceptance of Pearl Buck in Japan — Author of *The Good Earth*, Mixed-race Children's Mother

Yang Ah-lam

The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Pearl Buck's works translation and her visit to Japan in the 1960s. Pearl Buck who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was used as a content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arl Buck's *The Good Earth* was read by the Japanese as a sociocultural text abou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a literary text. However, Her four visits in the 1960s were unusual. She visited as a screen writer for the production of <Tsunami> in 1960 while she visited in 1966 and 1967 were for the relief of mixed-race children. Pearl buck's adoption history consideration should be covered not only the translation of text but also their activities in Japan. In short, Japan's research on accepting Pearl Buck should be restructured in the context of the post-war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is regard, the article is a study of translation and cultural history in which the U.S. and Japan approached one section of cultural exchange, diplomacy and cultural transla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ranslation of text, her visit to Japan and the agenda of social activities.

Key Words : *The Good Earth*, Mixed-race Children, Translation of Culture, Cold War Culture, <Tsunami>